

| 해외해양사론 |



『史記』에 기재된 최초의 중국항해가 徐福에 대한 연구현황과 전망

| 추이 윈펑(崔云峰) | 中國 集美大學校 副教授
yunfengcui2000@aliyun.com

차 례

- | | |
|-----------------|---------------|
| I. 서론 | V. 서복 선대의 도착지 |
| II. 서복의 출생지 | VI. 연구전망 |
| III. 서복 선대의 출발지 | VII. 결론 |
| IV. 서복 선대의 항로 | |

초록

徐福은 2000여 년 전 秦나라 시기의 齊人 方士로서 기원전 209년 秦始皇의 어명에 따라 童男童女 3000명과 百工 및 오곡종자를 실은 방대한 선대를 통솔하여 蓬萊, 方丈, 瀛洲 등 三神山을 찾아 바다로 진출하였지만 “넓은 평원에 이르러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중국 내 학자들은 서복의 출생지, 서복 선대의 출발지, 서복 선대의 항로, 서복 선대의 도착지 등에 관련해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제출함에 따라 학자들 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수십 년간의 논쟁을 벌여왔지만 기초자료는 다만 사마천의 『사기』뿐인 관계로 현재까지도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주제어 : 徐福, 출생지, 출발지, 항로, 도착지

I. 서론

서복은 2000여년 전 진(秦)나라 시기의 齊人 方士(道士)로서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어명에 따라 3천 童男童女와 百工 및 오곡종자를 적재한 선대를 통솔하여 長生不老藥(草)을 얻기 위해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三神山’인 蓬萊, 方丈, 瀛洲를 찾아 망망대해로 진출하였다. 『사기』에서는 서복이 선대를 통솔하여 출발한 후 “평원지대에 이르러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서복에 관련된 고대 사료는 그 양이 상당히 적다. 서복에 대해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이며 그 후의 사료는 모두 이에 기초한 것이다. 서복에 관련된 중국 사료는 『사기』 외에도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의초육첩』, 『태평어람』, 『태평광기』, 『자치통감』, 『제승』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해동제국지』, 『파문록』; 일본에는 『일본서기』, 『일본고대사』, 『일본민족연원』 등이 있다.¹⁾ 이 외에도 비록 사료는 아니더라도 徐福에 관련된 시나 글귀가 있다. 당나라 시기 이태백의 『古風』, 당태종 이세민의 『觀海』, 백거이의 『海漫漫』, 李商隱의 『海上』; 송나라 시기 구양수의 『日本刀客』, 소식의 『海市』, 祖元の 『祭徐福詩』; 원나라 시기 吳萊의 『廳客話日本熊野徐福廟』; 명나라 시기 주원장의 『明太祖和詩』; 청나라 시기 黃遵憲의 『詠徐福』 등이 그 예다.²⁾

지금까지 서복에 관련된 저서는 『徐福志』, 『中外徐福研究』, 『徐福研究』, 『徐福東渡』, 『徐福故里考辨』 등 근 50편이 출판되었으며, 이외에도 『全國首屆徐福學術討論會文集』, 『中日關係論文集—從徐福到黃遵憲』, 『紀念徐福東渡二千二百周年徐福研究論文集』, 『徐福國際學

1) 鞠桂燕(2008), 『中日徐福傳說比較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p.11.

2) 鞠桂燕(2008), 『中日徐福傳說比較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p.12.

术讨论会论文集』 등과 같은 학술회논문집도 출판되었다.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논문검색사이트인 中國知网³⁾에서 검색어 ‘徐福’으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저자, 회사명, 약명, 식품명, 주제와 무관한 서복 등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였을 때 검색된 논문 수는 270여 편에 달하였다. 비록 통계수치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양이 상당한 많은 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서복에 관한 전설을 주제로 중국 내에는 장편소설, 드라마, 가극, 경극, 애니메이션, 노래 등과 같은 여러 형식의 예술작품이 제작되었다.⁴⁾

중국, 한국,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서복에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서복에 관련된 국제학술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여 왔다. 1987년 중국사학회, 일본사학회, 중국항해학회, 连云港市徐福研究会 등 12개 학술단체와 정부부서가 공동으로 “全国首届徐福学术讨论会”를 개최하고 『全國首届徐福学术讨论会文集』을 출판하였다.

한중일 학자들은 서복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많은 연구회를 설립하였는데, 曲玉维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 22개 연구회가 있고 한국에 3개, 일본에 19개 연구회가 있다고 한다.⁵⁾ 이러한 연구회는 학술회를 개최하고⁶⁾ 학술회논문집을 발간하

3) <http://www.cnki.net>.

4) 張云方(2010), 「徐福文化及徐福文化研究的意義」, 『中日關係史研究』, 第1期, p.37.

5) 曲玉维(2010), 「徐福: 中国海上丝绸之路的开启者」, 『中外关系史论』, 第19輯, pp.223-224. 중국 내 徐福에 관련된 학술연구회는 中国国际徐福文化交流协会, 中国徐福会, 山东省徐福研究会, 山东省龙口市徐福研究会, 山东省胶南琅琊暨徐福研究会, 山东省平度市徐福研究会, 山东省黄岛徐福研究会, 河北省徐福儿童会, 河北省盐山县徐福儿童研究会, 河北省秦皇岛市徐福研究会, 江苏省赣榆县徐福研究会, 江苏省连云港市徐福研究会, 江苏省苏州市徐福研究会, 浙江省象山县徐福研究会, 浙江省慈溪市徐福研究会, 浙江省慈溪市三北镇徐福研究会, 浙江省慈溪市龙山镇徐福研究会, 浙江省慈溪市范市镇徐福研究会, 浙江省岱山县徐福研究会, 江西省临川市徐福研究小组, 香港徐福协会, (台湾)世界徐氏宗亲总会 등이 있고; 한국 내에는 济州徐福协会, 巨济岛徐福协会, 西归浦市徐福文化国际交流协会 등이 있으며; 일본에는 日本徐福会, 东京徐福研究会, 新宫市徐福协会, 佐贺县徐福会, 扶桑徐福史研究室, 熊野徐福研究会, 宫崎徐福研究会, 神奈川县徐福研究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회는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예컨대 江苏省 连云港市徐福研究会是 연구회학술지 『徐福』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纪念徐福东渡二千二百周年徐福研究论文集』과 『徐福国际学术讨论会论文集』을 출판하였으며, 中国航海学会와 徐州师范学院은 공동으로 『全国首届徐福学术讨论会论文集』을 출판하였다. 山东省徐福会是 논문집 『徐副研究』을 출판하였으며 중국 중일관계사연구회는 저서 『从徐福到黄遵宪』을 출판하였다.⁷⁾

이 외에도 한중일 일부 지방정부는 서복의 전설과 관련된 유적을 이용해 광장, 공원 등을 조성하고 기념관과 동상을 세워 본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 서복의 전설과 관련된 유적은 북쪽의 辽宁省 绥中에서 시작하여 河北省의 秦皇岛, 盐山县 千童镇; 山东省의 蓬莱, 龙口, 青岛, 胶南; 江苏省의 赣榆; 浙江省의 慈溪, 岱山, 舟山, 象山; 江西省의 临川; 福建省의 泉州 등 14곳이 있다. 한국 내의 서복과 관련된 유적은 제주도, 경상남도의 남해도, 거제도 등 3곳이 있다. 일본 내의 서복과 관련된 유적은 22곳이 있는데 주로 列島暖流가 통과하는 九州地域, 中国地域, 四国地域, 中部地域, 近畿地域, 关东地域, 东北地域에 분포되어 있다. 예컨대 中国 江苏省 赣榆에는 徐福祠廣場, 徐福生态园, 徐福祠, 徐福石像, 徐福庙 등을 조성하여 서복을 기리고 있으며, 山东省 龙口에는 徐公祠, 妃姆岛 徐福文化廣場, 徐福园, 徐福像 등이 있다. 山东省 胶南의 琅琊台에는 徐福殿, 徐福石像, 秦始皇 遣徐福入海求仙群雕가 있으며 河北省의 秦皇岛에는 求仙入海处石碑, 盐山 千童城에는 千童

会, 京都徐福会, 丹后徐福会, 三口县祝岛徐福会, 富士吉田徐福会, 土界市徐福会, 秦始皇与徐福研究会, 大阪徐福友好私塾, 富士山徐福馆 등이 있다.

6) 2006년 북경에서 徐福国际学术讨论会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에는 赣榆, 2008년에는 苏州에서 徐福讨论会가 열렸다. 2008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徐福国际学术讨论会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에는 日本佐贺县에서 徐福国际学术讨论会가 열렸다.

7) 郭永(2009), 『徐福及东渡问题研究』, 山东大学校硕士学位论文, p.9.

祠, 千童碑, 望亲臺가 있다. 浙江省의 慈溪 大蓬山에는 徐福文化園이 조성되어 있고 岱山에는 徐福公祠, 徐福博物館, 徐福碑 등이 있다. 한국 제주도 서귀포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서복공원, 서복전시관, 서복 像이 있다. 일본의 많은 지역에도 서복에 관련된 공원, 석상, 기념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시기마다 수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활동을 벌여 서복을 기리고 본 지역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 예컨대 河北省 盐山에서는 5년마다 소축제, 60년마다 대축제를 거행하고 있는 千童文化節이 있으며 秦皇島에서는 매년마다 望海大會를 진행하는데 그 규모가 모두 상당히 크다. 그리고 江苏省 赣榆의 徐福節, 山东省 龙口的 徐福故里文化節은 이미 그 명성이 중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07년에 진행된 赣榆의 徐福節에 참여한 인수는 8만 여명에 달하였다. 일본에도 徐福에 관련된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유명한 것은 佐贺县 金立神社의 求雨儀式, 50년마다 한번씩 거행되는 徐福大祭; 福冈 八女市 童男山 烟熏祭 등이 있다.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학자들이 많은 저서를 출판하고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지만 서복의 출생지, 서복 선대의 출발지, 서복 선대의 향로, 도착지 등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현황을 정리한 기초에서 서복연구에 관련하여 전망해 볼 예정이다.

Ⅱ. 서복의 출생지

서복의 전설과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

8) 张云方(2010), 「徐福文化及徐福文化研究的意義」, 『中日关系史研究』, 第1期, pp.35-37.

과 재력을 들여 서복에 관련된 국내학술회의와 국제학술회의를 빈번히 개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은 지역이 서복의 출생지임을 증명함으로써 지역의 명성을 높여 관광업을 추진하고 국내외의 자금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특이한 현상은 매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이 서복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중국 내 학자들이 주장하는 서복의 출생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대체로 3곳이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江苏省 赣榆, 山东省 黄县(현재의 龙口市), 山东省 琅琊(현재 山东의 胶南市) 등이다.⁹⁾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서복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복의 출생지에 관련해서는 서로 자기의 견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서복에 관련된 기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시황28년(기원전219년), “齊人 서복 등이 상주문을 올려 해상에 신선이 거주하고 있는 삼신산이 있는데 그 이름은 蓬萊, 方丈, 瀛州이며 齋戒한 후 童男童女를 받치면 (장생불로약을) 얻을 수 있다고 아뢰었다. 그리하여 서복으로 하여금 동남동녀 수 천 명을 통솔해 신선을 찾아 바다로 떠나도록 하였다.”¹⁰⁾

상술한 기록에서 관건적인 문구는 “齊人 徐福”인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다름에 따라 그들이 주장하는 서복의 출생지는 상이하다. 江苏省 赣榆가 서복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된 논거는 1982년 지명조사를 실시할 때 赣榆县에서 명칭이 “徐阜”인 마을을 발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이 곳이 진나라시기 동남

9) 朱绍侯(1998), 『“齊人徐福”解』, 『徐副研究』, 青島海洋大學出版社, p.1.

10) 司馬遷(2006), 『史記·秦始皇本紀』, 上海辭書出版社, pp.52-53.

동녀 500명을 통솔하여 해외로 진출해 장생불로약을 찾기 위해 신선을 찾아 떠난 서복의 고향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龔榆가 서복의 출생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龔榆가 서복의 출생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¹¹⁾ 첫째, 戰國時期 龔榆는 齊나라의 소속이었으며 진나라 시기에는 琅琊郡의 소속이었는데 이는 “서복이 齊人”이라는 『사기』의 기록과 일치하다. 둘째, 진시황이 동부지역을 3차례 순찰할 때 龔榆를 2차례나 들렸었다. 셋째, 진시황이 琅琊에서 서복을 접견하였으며 龔榆는 琅琊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다. 넷째, 龔榆의 徐阜村 남쪽 15km 떨어진 곳에는 廬山이 있는데 서복과 동일시대의 유명한 方士인 宬生이 은둔하여 지내던 곳이며 龔榆 海州灣에는 신기루가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方士인 서복은 宬生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1985년 徐福村(徐阜村) 남쪽 20km 떨어진 大港頭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선박용 石碇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이 옛적에 항구였음을 증명한다. 여섯째, 明清時期的 縣誌, 州誌 등에는 모두 徐阜村에 관한 기록이 있다.

黃垺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기』에는 서복이 齊人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서복의 출생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齊人”을 齊國人, 齊地人, 齊郡人 등 3개로 풀이할 수 있으며 서복의 구체적인 출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齊國, 齊地, 齊郡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남쪽에는 泰山이 있는데 魯, 宋, 楚 등 나라와 인접하여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으며 燕나라와 인접하여 있다. 서쪽에는 黃河가

11) 罗其湘·汪承恭(1984年4月18日), 「秦代东渡日本的徐福故里之发现與考证」, 『光明日报』, 第3版.

있는데 趙나라와 인접해 있으며 동쪽에는 바다와 잇닿아 있다¹²⁾”는 范文瀾의 연구에 의해 그 당시 齊나라의 범위가 지금의 山東省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齊地의 범위는 현재 山東半島의 동부지역이며 泰山을 분계로 魯나라와 인접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齊나라를 멸망시킨 후 그 통치지역을 齊郡, 琅琊郡으로 나눴는데, 齊郡은 그 중의 한 곳이다. 상술한 지역범위로 볼 때 齊나라에는 黃縣, 琅琊, 贛榆가 모두 포함되고 齊地에는 黃縣, 琅琊가 포함되지만 贛榆는 포함되지 않으며 齊郡에는 贛榆와 琅琊가 포함되지 않고 黃縣만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천하를 36개 郡으로 나누고 郡에 守, 尉, 監을 설치하였다”고 기재한 후 바로 그 뒤쪽에 “齊人 徐福 등이 상서하였다”고¹³⁾ 적었는데 이는 “齊人”의 “齊”가 秦나라의 齊郡을 말하는 것이고 서복이 齊郡人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黃縣의 龍口에는 徐福의 출생지라고 불리는 徐鄉城 古蹟이 있다.¹⁴⁾ 이 외에도 黃縣에는 옛적부터 徐福에 관한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黃縣地域은 예로부터 方士들이 운집해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三神山이 渤海에 있다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발해연안에 위치해 있는 黃縣이 당연히 徐福의 출생지라고 강경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논거를 제출한 외에도 반대논거를 제출해 贛榆說과 琅琊說을 반박하고 있다. 즉 徐阜村을 同音인 徐福村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徐富村으로 독

12) 范文瀾(2000), 『中國通史簡編』, 河北教育出版社, p.71

13) 司馬遷, 『史記·秦始皇本紀』, 中華書局版.

周延云·宮同文(1994), 「建國以來國內外徐福研究述評」, 『臺灣大學校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p.86.

14) 于欽, 『齊乘·古迹』, 卷四.

朱紹侯(1998), 「齊人徐福解」, 『徐副研究』, 青島海洋大學出版社, p.4.

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村이라는 명칭은 唐宋 이후에야 나타났으며 秦漢時期에는 乡, 里를 설하였기 때문에 徐阜村은 秦나라 시기 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琅琊說(현재 山東省 膠南市)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1993년에 성립된 山東膠南徐福硏究會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琅琊가 당연히 서북의 출생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11년간 3차례나 琅琊를 순찰하였으며 琅琊臺를 직접 보수하였다. 그 당시 琅琊臺는 상당히 중요한 항구였으며 현재도 유명한 명승지이다. 둘째, 『사기』의 기재에 의하면 서북이 진시황에게 2차례 上書한 곳은 모두 琅琊이며 3번째로 알현한 곳도 琅琊이다. 즉 琅琊는 서북의 활동기지이며 方士들이 운집해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琅琊는 서북의 출생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서북의 출생지에 관련해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여 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관계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Ⅲ. 서북 선대의 출발지

중국 내 서북 연구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쟁은 서북 선대의 출발지가 어딘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서북 선대의 출발지와 관련해 북쪽의 秦皇島, 黃驛에서 시작하여 山東半島의 龍口, 成山头, 徐山, 琅琊; 江苏省의 贛榆; 浙江省의 杭州, 慈溪, 寧波; 廣東省 연안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黃县(龍口) 北岸說과 琅琊附

近说이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¹⁵⁾ 서복 선대의 출항에 관련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진시황본기』 외에도 『사기』에는 서복 선대의 인원 수에 관련된 두 개의 기록이 더 있다.

“(진시황) 또 다시 서복으로 하여금 바다로 나가 신선으로부터 장생불로약을 얻어오도록 하였다. 서복이 돌아와 ‘신하는 바다에서 신선을 보았나이다’라고 변명하였다. (신선이 하는) 말이 ‘자네가 황제의 사신인가?’ 신하는 ‘예’라고 대답하였소이다.’ ‘그대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延年益壽藥을 주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신선은 ‘자네 국왕의 예물이 너무 적어 약을 볼 수는 있지만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신하가 그 곳을 떠나 동남쪽 蓬萊山의 芝成 宮闕에 도착해 사신을 만났는데 피부색이 銅色이고 용의 모양을 갖췄으며 빛이 하늘을 비쳤다. 그리하여 신하가 “무엇을 받쳐야 하나이까” 하고 다시 묻자 해신은 ‘童男童女와 百工을 선물하면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진시황은 대단히 기뻐하여 즉시 동남동녀 3000명과 각종 오곡종자 및 百工을 모집하여 떠나보냈지만 서복은 넓은 평원지대에 이르러 국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¹⁶⁾

“方士 서복 등은 몇 년 동안 해상에서 神藥을 찾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자 소비한 많은 비용 때문에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진시황에게) ‘蓬萊의 神藥은 얻을 수 있었는데 늘 大魚의 방해로 인해 얻을 수 없었나이다. 청하옵건대 활을 잘 쓰는 사수들을 파견하여 석궁으로 사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진시황은 海神과 싸우는 꿈을 꾸었는데 사람 모양과 같았다. 해몽을 묻자 박사는 ‘水神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大魚나 蛟龍의 모습으로 나타남

15) 张云方(2006), 「中国的徐福研究方兴未艾」, 『“小泉政权后中日关系展望”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p.107.

16) 司馬遷(2006), 『史記·淮南衡山列傳』, 上海辭書出版社, p.822.

니다. 임금님께서 제를 지내고 준비를 단단히 하면 이와 같은 惡神은 사살할 수 있으며 그리하면 善神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여쭙었다. 出海者들로 하여금 거대한 어구를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석궁으로 대어를 사살하기로 결심하였다. 琅琊에서 출발하여 북쪽의 榮成山에 이르렀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芝罘島(현재 煙臺 부근)에 이르러 大魚를 발견하고 한 마리를 사살하였다. 성사하자 바로 상륙하여 서쪽으로 돌아갔다.”¹⁷⁾ “소문에 의하면 이 三神山은 渤海에 있으며 멀지 않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한 적이 있다.”¹⁸⁾

일부학자들은 상술한 기록에 근거하여 黃縣이 곧 서북 선대의 출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북이 도착하고자 하는 삼신산은 발해에 위치하여 있는데 黃縣이 바로 渤海灣에 위치하여 있으며 또한 서북의 출생지이므로 黃縣(龍口)이 곧 서북 선대의 출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서북 선대의 인원 수는 동남동녀 3000명, 百工(각종 匠人), 무장인원, 선원, 관리인, 방사 등을 포함하여 대략 5000-6000명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진나라 시기 가장 큰 선박인 樓船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선은 100명 정도 승선할 수 있으므로 5000-6000명이 탑승하려면 적어도 수 십 척의 누선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많은 선박이 인공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하나의 자연 항구에 집중 정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芝罘島(현재 煙臺 부근) 부근의 龍口 항구를 중심으로 주변 항구에 정박하여 있다가 출항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韓玉德,¹⁹⁾ 鞠桂燕,²⁰⁾ 郭永²¹⁾ 등 많은 학자들은 서북 선

17) 司馬遷(2006), 『史記·秦始皇本紀』, 上海辭書出版社, p.55.

18) 司馬遷(2003), 『史記·封禪書』, 遼寧電子圖書有限責任公司, p.180.

19) 韓玉德(2000), 「徐福及其東渡的幾個問題」, 『陝西師範大學校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p.82.

대의 출발지가 琅琊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 십 척의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의 면적이 넓고 경제가 발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항만 면적이 넓은 항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항구는 그 당시 다만 琅琊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琅琊는 전국시대 越나라의 수도로서 월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월나라 또한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서북 선대의 항해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줬을 것이다. 琅琊는 齊나라에 귀속된 후에도 경제가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진나라 시기에는 琅琊郡의 관청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시대와 진나라 시기의 중요한 항구이기도 하였다. 특히 서북이 처음으로 上書한 곳이 琅琊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上書하여 출발할 때 진시황이 승선한 곳도 琅琊이다. 따라서 서북 선대의 출발지는 당연히 琅琊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북 선대의 출발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없는 상태로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IV. 서북 선대의 항로

중국 내 학자들은 서북 선대의 항로에 관련해서도 비교적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서북 선대의 항로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북북항로, 북남항로, 남남항로, 남북항로 등 4개가 있다.

20) 鞠桂燕(2008), 『中日徐福傳說的比較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26-27.

21) 郭永(2009), 『徐福及其東渡問題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pp.37-38.

1. 북북항로는 산둥반도에서 출발한 후 발해해협²²⁾을 건너 요동반도를 지나 동쪽으로 항해하여 압록강 하구에 도착한 후 한반도 서부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한반도의 동남부 또는 남부에 도착한 다음 대한해협을 횡단하여 일본의九州에 이르는 항로다.
2. 북남항로는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후 황해를 횡단하여 한반도 서부의 甕津半島에 이르고 다시 한반도 서부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동남부 또는 남부에 이른 후 대한해협을 횡단하여 일본의九州에 이르는 항로다.
3. 남남항로는 동부 연안지역(江蘇, 浙江, 福建 등 연안지역)에서 동쪽으로 동중국해를 횡단하여 奄美諸島에 도착한 후 섬을 차례로 지나 북상하여九州에 도착하는 항로다.
4. 남북항로는 동부 연안지역(江蘇, 浙江, 福建 등 연안지역)에서 동북방향으로 동중국해를 횡단하여九州의 平戶島나 五島諸島에 이르는 항로다.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서북 선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항로를 선택하였는가는 그 당시의 해양기후조건, 조선기술, 항해술에 기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인된 고고학 성과에 기초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서북 선대의 항로를 추리하고 있다. 해양기후조건으로 볼 때 2000여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 산둥반도와 한반도 서해안의 직선거리는 대략 105해리이며 이 해역에는 사시사철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해류는 황해를 횡단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쳐 횡

22) 渤海海峽은 山東半島와 遼東半島 사이의 해역을 가리키는데 이 해역에는 많은 섬들이 산재하여 있다. 山東半島로부터 시작하여 南長山島, 北長山島, 廟島, 小黒山島, 大黒山島, 小竹山島, 大竹山島, 車由島, 墩磯島, 高山島, 砒磯島, 小欽島, 大欽島, 南城隍島, 北城隍島 등이 있는데 섬과 섬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5해리 정도이다.

방향으로의 밀립현상이 발생하게 한다. 항해기술로 볼 때 진나라 시기에는 나침반이 아직 항해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천문항해를 하던 시기이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을 관찰하고 방위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항해는 연안항해와 島嶼間的 항해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서북 선대가 주로 누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누선은 선체는 상당히 크지만 이에 비해 동력이 상당히 미약하다. 즉 누선은 주로 돛과 노를 사용하여 항해하기 때문에 항속이 상당히 느렸던 관계로 누선을 이용하여 황해를 횡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孫光圻 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북항로는 진나라 이전에 이미 나타났고 북남항로는 南北朝時期, 남남항로는 당나라 중기, 남북항로는 당나라 말기에 형성되었다고 한다.²³⁾ 예컨대, 당나라 시기 일본의 견당선은 주로 북남항로를 많이 이용했으며 그 후 남남항로를 이용한 적도 있었지만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결국 포기했던 것이다. 기원 742-754년간 당나라의 高僧 鑑眞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6차례의 시도 끝에 일본에 도착하였는데, 1-5차는 남북항로를 이용하려다 모두 실패하고 6번째는 남남항로를 이용해 겨우 성공하였던 것이다.

상술한 추리를 통해 서북 선대가 북북항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중국 대부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북항로는 진나라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고 섬을 따라 항해할 수 있으며 연안항로인 관계로 언제든지 해안에 정박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륙하여 담수와 식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고학자 嚴文明的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기원전 2500-기원전 1000년간 중국의 벼 재배 기술이 산동반도에 이르렀으며

23) 孫光圻(1998), 「古代中日主要航線考」, 『徐副研究』, 靑島海洋大學出版社, pp.152-170.

그 후 요동반도, 한반도와 일본 九州로 전파되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전파루트는 서북 선대의 항해시기 및 항로와 동일하다. 이 외에도 사료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일본에서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제나라의 刀幣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진나라 이전 이 항로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 서북 선대의 도착지

사마천의 『사기』에는 서북 선대의 최종 도착지에 관련해 다만 간략하게 “서북은 넓은 평원지대에 이르러 국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넓은 평원지대”가 어디인지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관계로 서북 선대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모든 학자들은 기타 사료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서북 선대의 최종 도착지에 관련해 중국 내 학자들은 많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반도설, 일본설, 주산군도설, 대만설, 필리핀설, 아메리카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주장 가운데 중국 대부분 학자들은 일본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진나라 시기의 중국인들은 이미 한반도와 주산군도, 臺灣島 등의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서북 선대가 한반도나 주산군도, 대만에 도착하였다면 사마천은 『사기』에서 확실하게 밝혔을 것이다. 아메리카나 필리핀은 중국 대륙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2000여 년 전 중국인들은 아직 이곳에 대한 지리개념이

24) 严文明(1982), 「中国稻作农业的起源」, 『农业考古』, 第2期, pp.19-31.

없었다. 따라서 조선기술, 항해기술이 초급단계이고 지리지식이 상당히 결핍한 진나라 시기 서북 선대는 원양항해를 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넓은 평원지대”는 일본을 가리키며 서북 선대의 최종 도착지는 일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기재한 “삼신산”, “넓은 평원지대”는 일본을 가리킨다. 사마천의 『사기·봉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삼신산은 발해에 있으며 멀지 않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한 적이 있다.”²⁵⁾ 진나라 시기 중국 대륙 동쪽 해상에 위치하여 있고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 도서는 다만 필리핀제도, 대만과 일본 열도뿐이다. 필리핀과 대만은 상술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능성이 희소하다. 즉 서북 선대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일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오대시기 后周(951년~960년)의 义楚스님이 쓴 저서 『义楚六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倭國이라고도 부르며 東海(동쪽 바다)에 위치하여 있다. 진나라 시기 서북이 500명 동남동녀를 통솔하여 이 나라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의 생김새나 풍속은 長安과 같다. 동북쪽으로 1000여 리 떨어진 곳에 산 하나가 있는데 산 이름은 富士山이라고 하며 蓬萊山이라고도 한다. 서북이 이곳에 도착한 관계로 蓬萊라고 불리며 오늘까지도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秦氏라고 얘기하고 있다.”²⁶⁾ 즉 서북 선대는 일본에 도착한 후 富士山 기슭에 안착하였으며 따라서 富士山을 봉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义楚스님은 일본 弘順 스님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록은 서북 선대가 일본

25) 司马迁(2003), 『史记·封禅书』, 辽宁电子图书有限责任公司, p.180.

26) 释义楚(1990), 『义楚六帖』, 朋友书店影印版, p.459.

에 도착하였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많은 중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2-3세기 좌우 일본열도는 생산력이 장기간 정체상태에 있던 绳纹时代에서 돌연히 弥生时代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데 이러한 생산력 발전은 일본열도 내의 요인이 아닌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학자 井上清은 “弥生文化는 绳纹文化의 승계와 발전이 아니며 순수한 외래문화인데 이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²⁷⁾”고 지적하고 있다. 서북 선대의 출항시기가 일본은 弥生時代の 초기였으며, 사냥과 채집을 위주로 하고 석기를 사용하던 绳纹文化에서 철기를 사용하고 벼 재배를 위주로 하는 弥生文化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도 서북 선대의 일본도착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일본 내에는 서북에 관련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서북의 상륙지에 한해서만도 20여 곳이나 된다. 전설에 의하면 서북이 일본에 상륙한 후 본지 주민들에게 벼재배 기술, 고래포획기술, 방직기술, 제철기술, 의학기술 등을 가르친 관계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서북을 “경작의 신”, “방직의 신”, “의약의 신”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각지에는 徐福墓, 徐福祠, 徐福墓碑, 徐福顯彰碑, 徐福廟와 서북에 제를 지내는 神庄 등 서북에 관한 유적이 50여 곳이 있다. 전설과 기록은 비록 역사가 아니어도 완전히 조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史實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상술한 각종 주장은 모두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서북 선대의 최종 도착지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논거도 확실한 사료가 아니므로 진실 또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7) 井上清(1976), 『日本历史 (上册)』, 天津人民出版社, p.5.

VI. 연구전망

현재 서복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서복에 관한 사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원사료는 다만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秦始皇本紀」, 「封禪書」, 「淮南衡山列傳」 뿐인 관계로 연구에 많은 애로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급선무는 신빙성이 있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아직도 중시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徐福의 출생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시대 제나라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고학 등 다 학과 통합연구는 완전히 공백 상태이다. 또한 학술 연구방법에서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함이 부족하며 사실과 상호 대립되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조속히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복 연구에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부족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의 서복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개의 면에서 그 연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국 내 많은 학자들, 각 徐福研究會 등 단체들이 힘을 합쳐 서복에 관련된 몇 개의 중요한 문제를 공동 연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서복의 출생지, 서복 선대의 출발지 및 항로, 서복과 한·일 관계, 서복의 문화적 영향 등이다.

(2) 사료를 위주로 연구되고 있는 현재의 서복 연구 외에도 고고학 등 기타 학과의 참여를 통해 서복에 관련된 새로운 기초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제나라의 경제, 문화, 종교, 민속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서복에 대한 이해가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4) 2000년 전 한중일 3국의 동일한 시대 때의 경제, 문화, 종교, 민속 등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5) 서복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어 더욱 상세한 자료가 수집되고 계통적인 정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6) 새로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서복 연구에 관련된 시리즈 총서가 출판하게 될 것이다.

(7) 한중일 3개국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8) 서복 연구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개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서복 연구는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VII. 결 론

2000여 전 서복 선대에 대한 사료는 다만 사마천의 『사기』뿐이다. 기타 사료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사기』에 기초한 것이다. 비록 서복 선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서복 및 선대에 관련해 확실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4대 논쟁 중에서 서복 선대의 도착지에 관련해서는 한중일 대다수 학자들이 서복 선대가 일본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최종결론이 아닌 것이다. 연구를 통해 서복에 대한 이해가 그나마 가일층 심화되었으며 2000여 년 전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영역에 관련된 연구도 한층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내 학자들은 서복 선대가 일본에 도착하여 중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일본에 전파하고 일본 사회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서복 선대가 일본에 전파한 오곡종자, 누에씨, 차나무종자와 경작 기술, 방직기술, 제철기술, 의약기술 등은 일본의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석기와 수렵생활이

위주이던 绳纹时代에서 철기와 농경을 위주로 하는 弥生时代로의 도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서복을 “경작의 신”, “방직의 신”, “의약의 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서복이 통솔한 3000명의 동남동녀와 백공, 선원, 방사, 관리인원 등이 일본에 안착하여 생활하고 또한 이들 후손들이 일본에서 대대손손 핏줄을 이어감으로써 일본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중일 학자들의 서복 및 선대에 관련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서복의 출생지에 대한 연구

둘째, 서복의 항해목적 및 항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셋째, 서복 선대의 출항지에 관한 연구

넷째, 서복 선대의 항로에 관한 연구

다섯째, 서복 선대의 도착지에 관한 연구

여섯째, 서복 및 선대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연구

대부분 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서복의 출생지, 도착지 등에 관련해 집중연구하고 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방사나 고적, 일부 고대의 기록 또는 본 지역의 전설을 논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서복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는 모두 이와 같은 증거물, 또는 자료가 존재하는데 그 어느 것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확실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는 徐福의 출생지, 항로, 도착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鞠桂燕(2008), 『中日徐福傳說比較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張云方(2010), 「徐福文化及徐福文化研究的意義」, 『中日關係史研究』, 第1期.
- 张云方(2006), 「中国的徐福研究方兴未艾」, 『“小泉政权后中日关系展望”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 曲玉维(2010), 「徐福: 中国海上丝绸之路的开启者」, 『中外关系史论丛』, 第19辑.
- 韓玉德(2000), 「徐福及其東渡的幾個問題」, 『陝西師範大學校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 鞠桂燕(2008), 『中日徐福傳說的比較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 郭永(2009), 『徐福及东渡问题研究』, 山東大學校碩士學位論文.
- 朱绍侯(1998), 「齐人徐福”解」, 『徐副研究』, 青島海洋大學出版社.
- 司馬遷, 『史記』.
- 罗其湘·汪承恭(1984), 「秦代东渡日本的徐福故里之发现與考证」, 『光明日报』, 4月18日, 第3版.
- 范文澜(2000), 『中国通史简编』, 河北教育出版社.
- 于钦, 『齐乘·古迹』, 卷四.
- 周延云·宫同文(1994), 「建国以来国内外徐福研究述评」, 『臺灣大學校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
- 孙光圻(1998), 「古代中日主要航线考」, 『徐副研究』, 青島海洋大學出版社.
- 严文明(1982), 「中国稻作农业的起源」, 『农业考古』, 第2期.
- 释义楚, 『义楚六帖』.
- 井上清(1976), 『日本历史〔上册)』, 天津人民出版社.
- <http://www.cnki.net>.